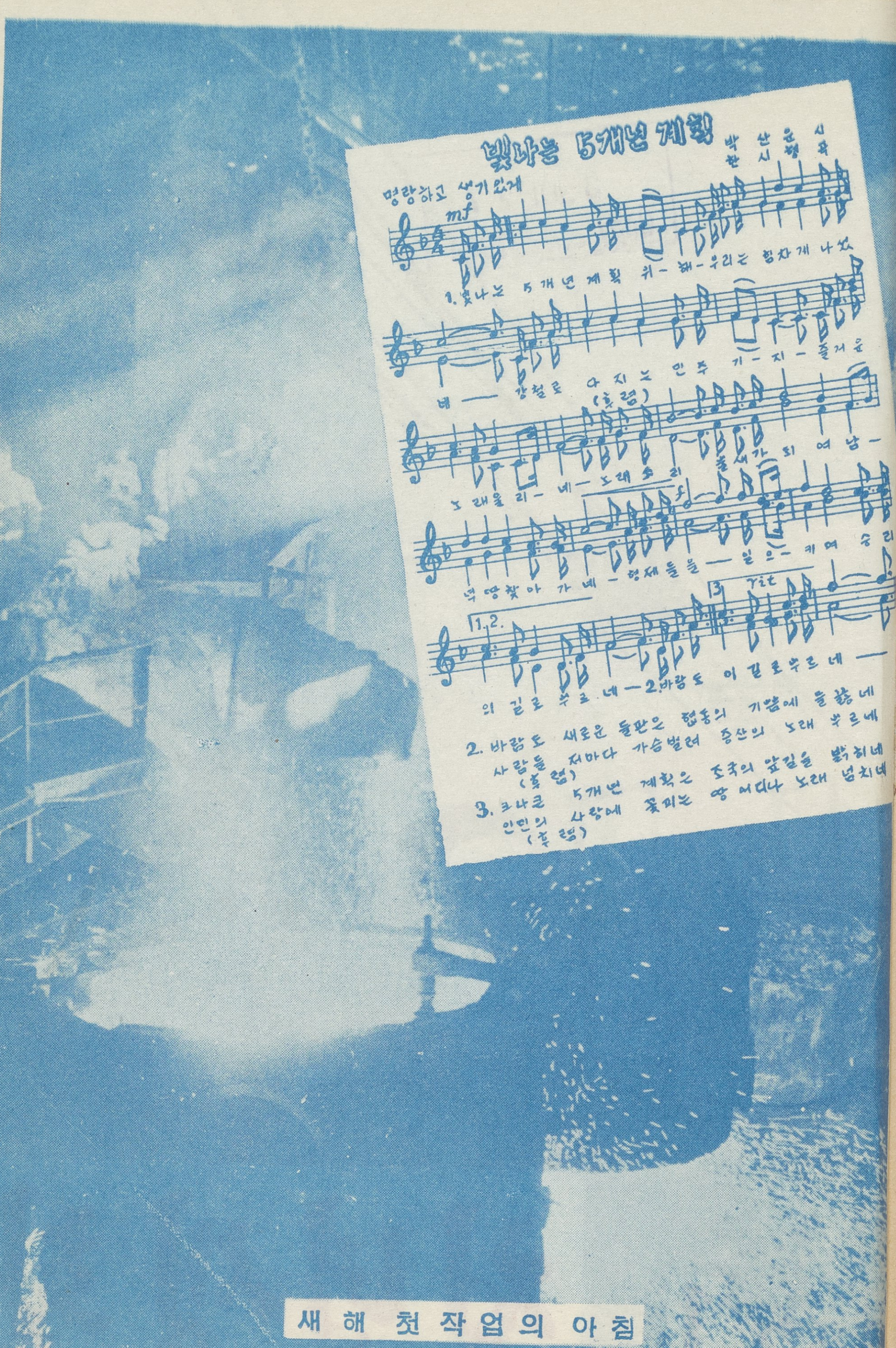
21



청년생활

957.1



새해 첫 작업의 아침

청년생활

1957. 1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위대한 승리와 새로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의 보람찬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 디디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이는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다 풍요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실로 눈부신 속도로 장성하는 생산과 건설, 그리고 인민 생활을 더욱 더 유족하게 할 지표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우리는 오늘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7년의 첫 출발점을 달리고 있다. 이 출발점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승리의 영광 속에 도달할 1961년의 보다 행복하고 부유해질 생활의 봄 언덕, 새 희망의 락원을 이미 바라 보고 있다. 이 길은 확신성 있는 길이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대한 당의 총 로선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바로 이 길만이 우리의 보람찬 청춘의 꿈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임을 굳게굳게 믿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나라 청년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크나큰 창조적 열의와 맹세로써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전진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들은 지난 기간 달성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경제 건설 과정에 존재하는 결함들을 시정함으로써 1957년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 연료, 금속, 기계, 광업, 화학, 건재 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그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과 함께 설비 리용의 개선 및 지방 원료 원천의 동원 리용에 기초하여 일용 필수품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알곡 증산을 확장하며, 인민들의 구매력 장성에 따르는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상품 류통을 강화하며 물자, 로력 및 재정 자원을 백방으로 절약하여야 한다.

1957년 계획은 방대하고 긴장된 계획이다. 계획의 긴장성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사정의 직접적 반영으로 된다. 우리의 조국은 통일되여 있지 못하며 이런 조건하에서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추진시킬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실로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은 청년들의 영웅적 로력과 창조적 지혜를 기대한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기술을 더욱 제고하며 설비 리용률 제고와 원가 저하 및 경제 절약을 위한 명수가 되여야 하며 이 투쟁에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당은 1957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로 우리 청년들을 부르고 있다. 청년들이여! 력사적인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용감하게 돌진하자. 모두다 위대한 승리와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젊은 투사들의 새해의 맹세

새해의 나의 맹세

친애하는 《청년 생활》독자 동무들! 안녕 하십니까!

나도 이번 새 해를 큰 감격 속에 맞이합니다. 아마 억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무들도 다 아다싶이 조선 로동당 12월 전원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영광의 새 해를 맞이한 우리 제강소로 친히 김 일성 원수께서 오셨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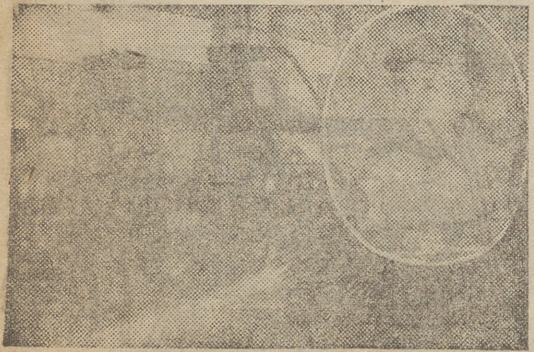
우리는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받들고 지난 3개년 계획 실행을 총화하였으며 1957년 생산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종업원 궐기 대회에서 우리 직장은 금년도에 강편 생산 계획을 1만톤 더 초과하여 생산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연기 가동률을 88%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계의 인계 인수 때에 그를 철저히 점검 보수할 것과 작업할 때에 기계 고장으로 인한 시간 랑비를 없게 할것을 결심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이 결심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큰 기계도 적은 기계들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명심하고 나는 나의 이 새 해의 결심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강선 제강소
분괴 직장 압연공
정 관 호

로력과 자재의 절약으로써

존경하는 《청년 생활》 독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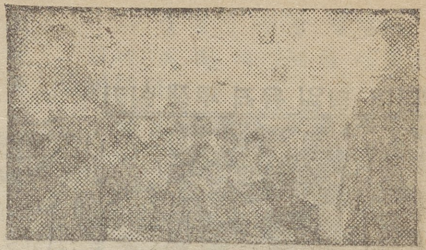
새 해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년에 맡은 국가 계획은 면사 24톤 632키로그람입니다. 나는 이 계획을 11월 25일까지 완수하렵니다.

그리고 년말까지는 3톤 70 여 키로그람의 면사를 더 증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순회 시간 6분을3분으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데 이것은 내가 로력을 절약하여 바닥 청소와 뽈스타카바 청소를 동시에 하지 않고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나는 동작도 보다 재빨리 하여 계사 시간을 전보다 4초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자재 절약에 주목을 돌려 전에 50센치메터씩 풀어 내치던 계사시 실을 5—10센치메터로 단축하며 오작품을 절대로 내지 않겠습니다. 새 해의 이 기쁨을 오래 잊지 않고 꼭 그렇게 하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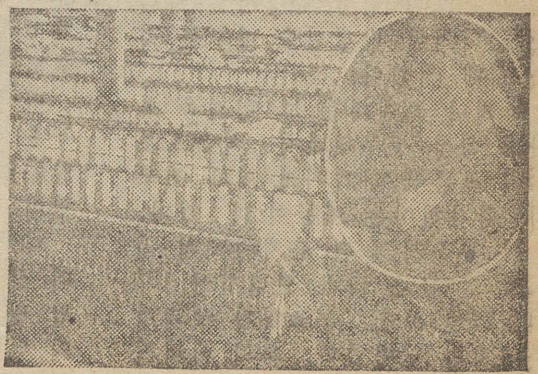
평양 방직 공장 정방공
김 복 실



가르치며, 도움도 받으며

다정한 여러 벗들! 새해의 악수를 보냅니다. 새해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년부터 면화 재배 면적을 30—37정보로 확장하고 정당 수확고를 평균 1톤 100키로그람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나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 보다도 먼저 지난 해 우리 조합이 면화의 선진 재배 기술을 도입하는 면에서 범하였던 결함을 고칠려고 합니다. 즉 지난 해 우리들은 지방 토질과 기후 풍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확 기술 지표를 그대로 조합에 적용시킨 결과 면화의 수확고가 높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나는 기존 선진 기술과 우리 조합 농민들의 훌륭한 경험을 배합시켜 조합 실정에 맞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나는 우리 조합 농촌 학교 민청원들 속에 살려고 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며 이들의 도움도 받으며 나는 나의 연구를 계속하렵니다.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
농업 기수 장 세 근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 실기



첫 전투

글 · 김 일신

그림 · 남 현주

그는 처음으로 전투 부대에 참가했다. 공청원인 리 동무는 기습 작전의 행군 대렬에서 억제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에 사로 잡혔었다.

험준한 산발을 처음 행군해 보는게 아니지만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천고의 밀림 속에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비탈길을 따르는 것은 힘에 겨웠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힘겨움 보다도 대장 동무한테서 처음으로 38식 보총을 타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가한다는 기쁨이 더 컸다.

리 동무가 유격 근거지에서 산으로 들어 온 것은 일년전인 1934년 11월 초순,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치던 날이였다. 그의 아버지 리 성복 로인은 1931년의 추수 폭동과 1932년에 있은 춘황 폭동 때에 군중의 선두에서 일제 침략자들과 주구 통치 계급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유격 근거지로 이주해 온 후에도 농민 위원회와 반제 동맹(反帝同盟)에서 유격대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1933년 봄, 경찰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당하였다.

어머니는 그 먼저 리 동무가 열두살 나던해 겨울 애기를 낳은지 일주일 만에 계죽을 먹은 것이 탈이 되여 세상을 떠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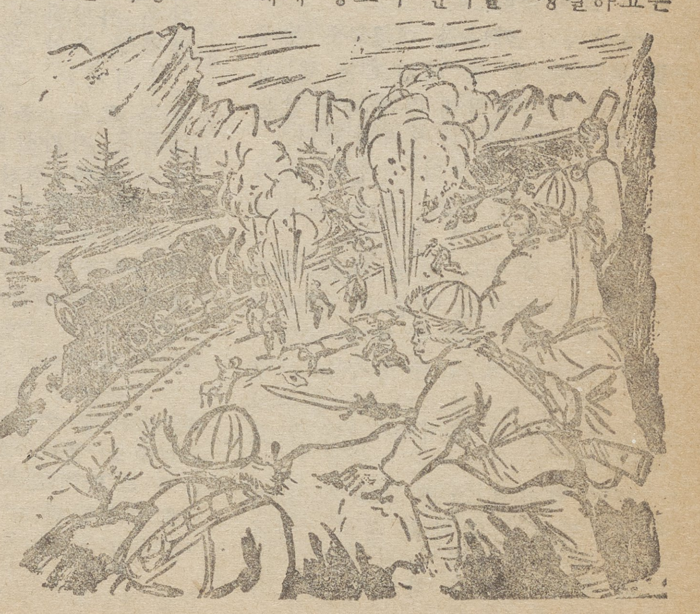
리 동무는 유격 근거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아동 혁명단 모범 단원이 되였으며 후에 유격대의 련락병으로 선발되였다. 처음 산에 올라 왔을 때는 훈련도 받으며 후방 부대에서 공작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유격 근거지에서 공작할 때 소위 토벌한다고 하여 달려드는 왜놈의 토벌대를 격퇴하는 전투에서 포탄을 운반하며 때로는 기여 오르는 놈들을 돌을 굴려 잡기도 했고 양포로 적을 쏘아 잡기도 한 리 동무는 언제나 《나도 능히 전투 부대의 대원으로 왜놈들을 잡을 수 있는데》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1935년 가을 어느날 리 동무는 전투 부대로 련락을 가게 되였다.

바로 이때 전투 부대에서는 새로운 전투 과업이 하달되였다.

그것은 유격 근거지인 처창즈(車廠子)를 공격하기 위하여 돈화(敦化)를 떠나 하발령(哈爾吧嶺)을 넘는 적들의 군용 렬차를 기습하는 전투 과업이였다.



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부대의 선두에는 최 현 대장이 서 있었다.

리 동무는 련락 임무를 끝내고는

—대장 동무! 저를 오늘부터 전투에 참가시켜 주십시요. — 하고 각 중대에 집합 명령이 내렸을 때에 최 현 대장에게 애원하듯 졸라댔다.

대장 동무는 아무 대답도 없이 웃는 얼굴로 행군 준비를 하더니

—좋소! 동무를 제2중대에 보내 주지. 동무가 유격 근거지에서 왜놈들을 용감하게 잡았다는 소문은 나도 이미 알고 있소. 허지만 싸움판에서는 더욱 용감해야 하오. — 대장은 엄격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38식 보총을 그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전투 부대에 입대하게 되였던 것이다.

부대가 하발령 철'길 부근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이른 새벽이였다. 도착하자 유격대원들은 철'길 해제 장소와 진지를 정찰하고는

옹 동무를 위시한 철'길 해제조를 구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휴식하면서 적을 대기하였다.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은 백두산을 바라 보며 보초를 섰던 리 동무는 길준 동무와 보초를 교대하고 자기 진지에 돌아 왔다.

바로 이때 산 아래에서 지심을 울리며 철갑차가 산비탈을 돌고 있었다.

—저 놈의 차가 앞서 달린다는 척후차다.

곁에 있던 박 동무가 숲 속에서 철갑차를 바라 보며 알려 주었다.

적들은 벌써 수차에 걸친 렬차 기습을 받았었다. 그래서 주력 부대의 이동 수송이나 군수 물자 운반 때에는 우선 서로 겹열과 철도 연선의 정형을 저렇게 감시하는 것이였다.

철갑차가 지나간 다음 옹 동무를 비롯한 철'길 해제조는 철'길로 내려가 산비탈에 부설되여 있는 철'길를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숲 속에서 그들의 작업을 내려다 보던 리 동무는 숨을 모두어 쉬며 총탁을 옮겨 잡았다.

—적을 잡기도 전에 가쁜 숨을 쉬구… 나종에는 어떻게 할려구 그래. 면바루 총을 쏠 수두 없어—

리 동무를 보고 박 동무는 이렇게 그를 안정시켰으나 리 동무의 흥분된 마음은 좀처럼 가라 앉질 않았다.

이때 멀리서 고동 소리가 들려 왔다. 뒤이어 속력을 내며 달려 오는 기차 소리가 들려 왔다.

리 동무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산비탈을 돌아 오는 기차를 보았다. 기관차 바로 뒤에는 두개의 철갑 차량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는 보통 객차와 짐 실는 유개차량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그러나 기관차는 산비탈을 돌아 약 10메터 가량 줄달음쳐 달리더니 통쾌하게 옆으로 끄꾸라졌다. 이와 동시에 2개의 철갑 차량과 4개의 보통 차량이 철둑에서 곤두 나가 떨어졌다.

하발령 골짜기의 폭음이 산을 넘었다. 적들의 비명 소리도 화염에 싸여 멀어졌다. 이때 섬멸의 명중탄을 우리의 용감한 유격 대원들은 퍼부었다.

리 동무는 철갑차의 문을 열고 나오는 두 놈의 장교놈과 한놈의 졸병놈을 쏘아 눕히고는 돌격조와 함께 달려 내려 가며 전복되지 않은 차량에서 대항하는 적들을 여러놈 쏘아 죽였다.

유격대는 기세을 늦추지 않고 계속 포위 공격하였다. 잠시 후 적들은 자기들이 완전 포위된 줄 알자 차량 문밖으로 총을 던지고는 두 손을 들고 투항하였다.

—리 동무! 투항하는 놈은 쏘지 마시오—한놈이라도 더 잡아 치울려고 자리를 옮기며 사격하던 리 동무는 지도원 박 동무의 주의를 받았다.

—네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들이지—하고 총창으로 그 놈의 가슴을 찔러 버릴 생각이 가슴에서 방망이질 하였다. 리 동무는 엉거 주춤하고 서 있는 포로들을 유심히 노려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련속 력사 이야기

을지문덕장군



글·남궁 만

그림·정 현웅

한낱 이름 없는 농민의 아들인 을지 문덕(乙支 文德) 장군은 모이지(慕離支)의 벼슬에 올랐다. 모이지라는 것은 왕을 대신하여 나라의 정치와 군사의 권리를 한손에 잡은 높은 벼슬이다. 을지 장군이 이렇게 높은 벼슬에 오르기 까지는 많은 연유가 있다.

고구려는 영양왕(嬰陽王) 23년때(서기 612년) 수(隨)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였다. 오직 이것을 물리치는 싸움의 앞장에 설 사람은 을지 장군 밖에 없었다. 수 나라의 왕 양광(楊廣)이라는 자는 그의 아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포악한 군주였다. 이 수 양제는 왕위에 오르자 사방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오직 고구려만이 그의 침략에 굽어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 양제는 드디여 3백만의 대군을 친히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고구려의 조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귀족들은 그저 벌벌 떨기만 하였다. 어떤 자는 항복하여 수 양제의 속국이 되자고 했다. 그러나 왕 앞에서 을지 장군은—어찌 나라와 백성을 원쑤에게 내여 맡기리까? 죽기로써 싸울 것을 아뢰오!—하였다. 을지 장군은 비록 농민의 자식이기는 하나 학문이 높았고 그의 무술과 용맹을 따를자 없었다.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왕은 드디여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을지 장군에게 모이지의 벼슬을 내렸던 것이다.

왕으로 부터 나라를 구하라는 분부를 받자 을지 장군은 이내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힘은 너무도 약하였다. 온 나라의 군사를 다 모아야 20만명도 안되였다. 군기도 없었다. 먹고 싸울 량식도 없었다。그러나 을지 장군은 있는 지혜를 다하여 군비를 갖추었다.

"무서운 것은 백성들의 힘이였다.

을지 장군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나섰다는 말을 듣자 적정에 싸여 있던 백성들은 제각기 앞을 다루어 을지 장군을 찾아 왔다. 젊은이들은 군사가 되기를 탄원하였다. 군사가 못되는 사람들은 애끼던 쟁기와 낟알을 바치여 원쑤를 물리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군의 사령부인 모란봉의 을밀대에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고 군기와 식량도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였다.

이와 같이 군비를 갖춘 을지 장군은 드디여 정예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료동평야 (지금의 동북 지방)로 나왔다. 장군은 북방 대륙에서는 가장 크고 튼튼한 성인 료동성을 비롯하여 여러 성에다 군사를 배치하고 죽기로써 싸울 것을 분부하였다.

과연 수 양제의 3백만 대군은 료수를 건너 료동 평야로 기여 들었다. 치렬한 전투는 벌어졌다. 수 많은 적군은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기여 넘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사들은 용맹을 떨치여 원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바로 이 때였다.

수군(水軍)이 양자강을 떠나 패수(浿水—지금의 대동강)로 향하였다는 정보가 들어 왔다. 을지 장군은 급기야 말머리를 돌렸다. 래 호아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빼앗기 위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륙군도 평양성으로 나와 수군과 힘을 합하여 평양성을 포위하려는 것이 틀림 없었다.



을지 장군은 급기야 평양성으로 돌아 왔다. 장군이 평양성으로 돌아 오자 래 호아의 수군이 온다는 소문은 인심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러자 또다시 긴급한 소식이 들어 왔다. 그것은 45만의 적병력이 평양성으로 쳐 들어 온다는 것이였다.



조정의 왕과 귀족들은 무서운 불안가운데 빠졌다. 적의 륙군과 수군이 평양성을 포위만 하게 되면 영락없이 평양성은 함락되고야 말 것이다. 평양성은 나라의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평양성 함락—이것은 무서운 일이였다.

그러나 을지 장군은 태연히 말하였다. —제가 적진으로 가서 적장 우 문술을 만나겠나이다! —그러자 모두들 놀랐다. 왕은 이내

—귀한 몸이 원쑤의 손에 잡히면 어떻거겠소?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장군은

—제 념려는 마옵소서, 적군의 형편을 살피여 반드시 이길만한 계략을 세우겠나이다!

하고 적진을 향하여 단신으로 떠나갔다.

을지 장군은 나라의 운명을 한 어깨에 걸머진 귀중한 몸이다. 장군이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 갔다가 만일 잔인무도한 원쑤의 손에 잡히게 된다면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 양제는 잔인 무도한 침략자였다. 그는 장수들에게 고구려의 왕과 유명한 장수 을지 장군을 꼭 사로 잡으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을지 장군은 압록강 푸른 물을 조그마한 쪽배로 건넜다.

적진에서는 몹시 놀랐다. 을지 장군이 단신으로 찾아 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그러나 적장 우 문술은 놀란 빛을 가까스로 감추며 을지 장군을 들어 오게 하였다.

을지 장군은 들어 왔다. 적장들은 일제히 을지 장군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장군은 적장들을 유유히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우 문술은 더 참지 못하고—나를 찾아 온 자는 대체 어떤 작자이냐?

하고 와락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장군은 태연히 말하였다.





—15일간 더 기다릴 것이니 잘 생각하오!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지금 까지 묵묵히 앉았던 적장 우 중문이 벌떡 일어나며

—페하께서는 을지 장군을 생포 하라고 하시였소!

하고는 곧 군사를 불러 을지 장군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령이 내리자 적군의 탐사대는 요란하게 말 발굽을 울리며 을지 장군을 추격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우 문술 장군은 어디 계시오?

—바로 나요.

—그럴 리가 없소. 우 문술 장군은 일세의 영웅이라 들었거던 어찌 사람을 대접하는 례절도 모르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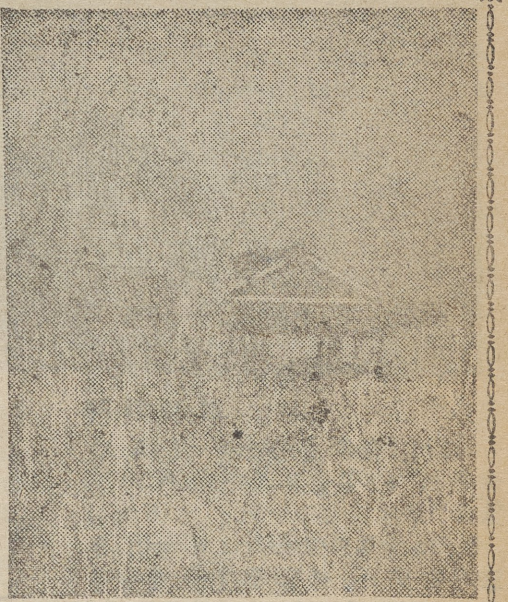
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제서야 우 문술은 당황하며—을지 장군! 내 급기야 례절을 잃었소이다. 허물 말고 대상으로 오르시오!—하고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이렇게 하여 을지 장군은 적장들의 기세를 누른 다음 담판을 시작하였다. 장군은 두 나라가 화평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웃 나라를 까닭도 없이 침략하는가? 꾸짖기도 하였다. 물론 담판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장군은 넙지시





우리고향의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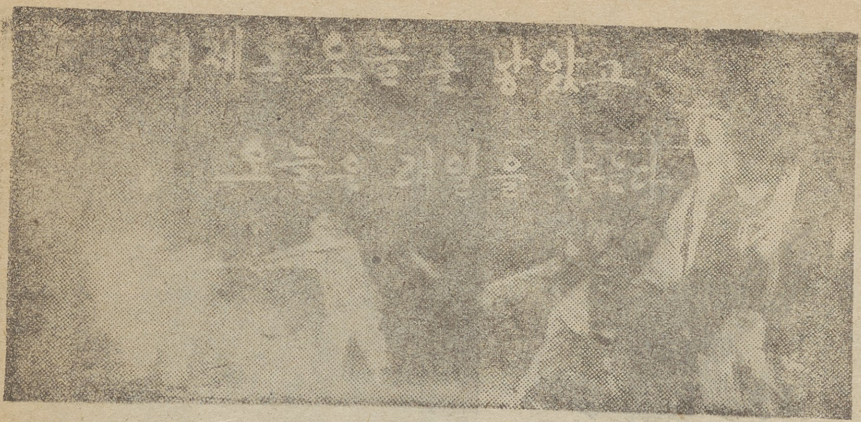
★대동문에서 본 련광정★

련광정에 오르니 가슴에 안기누나,
눈덮인 중화와 승호의 벌판이….
란간에 다가서니 눈'가에 가깝구나,
하늘에 기대인 모란봉 릉선이….

굽어 보면, 어름'장 덮이인 루정 기슭에
대동강의 물소리… 흐르는 물소리…
가슴 속엔, 태양이 미소하는 맑은 하늘 아래
내 고향 평양이 가슴 펴는 희망의 맥박….

그 물소리 속에, 그 맥박 속에
이 루정에 고인 옛벗의 숨'결 스며있구나.
먼 후'날의 사람들, 오늘의 우리를 또한 옛 벗으로 부르리니—
가슴에 이야기하자. 그들의 옛말속에
우리의 자랑 끝없이 높도록….

(련광정에서)



본사기자 한 희만

내가 황해 제철소를 찾아 간 것은 설날 명절도 갓지난 어느 날이였다.

민청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로 앞에서 나는 작업 동작이 유달리 민첩한 한 청년을 보았다.

—저 동무가 누굽니까?

그러자 브리가다장은 나에게 말했다.

—그를 모르십니까? 저 동무가 바로 우리 직장의 자랑인 황 은석 동무입니다. 그는 우리 민청로의 3개년 계획을 지난 해 6월 27일까지 완수케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훌륭한 창의 고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는 모범 용해공으로서 민청 제4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었지요.

이날 저녁 나는 황 동무네 사택을 찾았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그의 안해가 사택 앞에 서 있었고 황 동무도 방금 공장에서 돌아 온듯 그 곁에 서 있었다. 황 동무는 어린애를 덥석 받아 안더니만 그를 공중 추켜 올렸다.

—규철아! 너 오늘 동안 더 큰 것 같구나!

그런지 토실토실한 아기도 과연 그렇다는듯 생글생글 웃는다.

비로소 그는 기자를 발견한듯

—어서 오십시요—한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 갔다.

—내가 이 공장에 온 것은 정전 후 군대에서 제대된 후부터였지요. 그 때는 벌판에 철주들만 우뚝우뚝 솟아 있었답니다. 우리들은 추운 겨울 날에도 파괴된 평로 밑에 거적을 깔고 밤'잠을 자면서 일을 조였습니다. 쏘련 기사 동무들도 밤을 밝히면서 현장 작업을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온갖 곤난을 극복하면서도 어제'날의 재'더미에 오늘의 황철을 낳아 놓았으며 3개년 계획을 2년 7개월로 단축하여 전 공장적으로 7월 28일 그를 완수하였습니다.

1954년 6월 1일—수상 동지의 림석 하에 복구된 민청로의 첫 출강을 하던 그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중공업의 심장인 제철 부문에서 일하는 보람을 그때만큼 가슴 뜨겁게 느낀 때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황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놈의 이름도 황 규철이라 하였는데 이제 둘째 놈이 낳면 황 해철이라고 붙일 예정입니다…하하하

그의 말 속에는 자기 생활과 직무를 사랑하는 높은 긍지가 담겨져 있었다.

—참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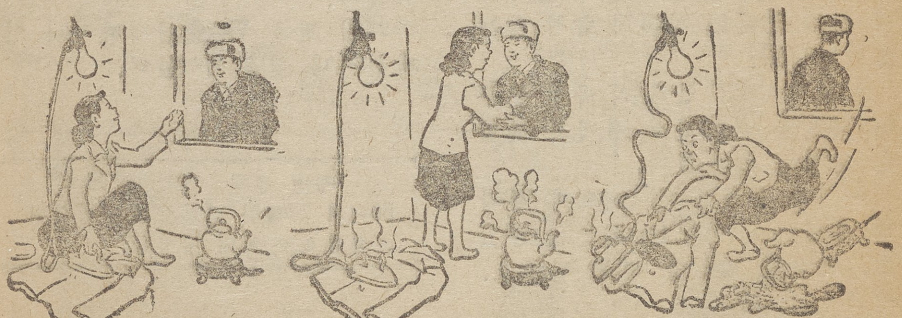
—55년도에 하였습니다. 처도 경기도 출신으로 제대 군인인데 지금 전동기 수리 직장의 권선공으로 있습지요. 우리들은 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고 고향의 부모들을 하루 속히 만날 가장 기쁜 날을 위하여 또 규철이놈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혼 이후 단 하루의 결근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부인 리 옥련 동무를 그저 가정 부인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린근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한 쌍의 행복스런 로동 부부라고 한다.

나는 그의 서가를 처다 보았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서적들과 각가지 소설책들을 비롯하여 《금속 공학》, 《야금 공학의 기본》, 《고속도 제강법》 등 기술 서적들과 원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책꽂이 우에는 깨끗하게 정서된 자습 계획서가 붙어 있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군요?

—뭘요… 하긴 배우지 않구서야 어찌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겠습니까? 더우기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공장은 두개의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하게 되며 현재보다 3•4배의 강철 생산과 압연 생산을 목표로 하는것 만큼 우리 매개 로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술적 수준도 더 높아질게 아닙니까? 더우기 우리들, 청년들인 경우에



는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년 계획 기간에는 당과 민청 단체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무기능공으로부터 6급공으로 장성되였습니다만 앞으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기어코 기사의 자격을 얻을 예정입니다. 나는 민청 제 4차 대회 회장에서 이를 가슴 깊이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로어 자습도 하는 데 지금은 사전의 힘을 빌어서 기술 원서들도 약간 리해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정 한끝을 응시하는 그의 두 눈'동자는 불타는 희망으로 황황히 빛났다.

—밤 교대에서 돌아 와서도 세 시간 전에는 자리에 눕지 않는 성미랍니다.

이렇게 그의 안해 리 옥련 동무가 얼굴을 붉히면서 곁에서 말발을 붙이는 것이였다.

—기자 동무! 나는 요새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오늘을 낳았고, 오늘은 래일을 낳는 다구요. 어떻습니까?

이 날밤 나는 황 동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그의 집을 나섰다.

그의 말을 나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다.

로력의 열매

젊은 학사의 훌륭한 발명

29 세의 젊은 고 길환 공학사는 건설 대학 건설 구조학 강좌장이다.

그는 우리 나라의 기술 인재 양성에서와 자기의 과학 연구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길환 공학사는 꾸준한 노력으로써 조립식 철근 콩크리트 구조를 발명하였다. 이는 사진에서 보는 바처럼 미리 준비된 철근 콩크리트를 집 기둥에 올려 놓는 방법이다.

고 길환 공학사가 발명한 이 방법은 맨처음 룡성 육류 콤비나트의 지붕을 씌울 때 적용되여 로력을 수다히 절약하였으며 자재의 랑비를 방지하였다.

그가 발명한 방법은 그후 서평양 철도 공장과 경공업성 염색 공장 그리고 남포 제련소 등 공장, 기업소의 신축 공사에 계속 적용 될 것이다.



"청년 생활 1956년 11호"
60페지 14행의 김봉상은 김봉삼의 오식임으로 이에 정정함

나는 어떻게 하여 농산 기사가 되였는가

—농산 기사 윤 병선 동무의 수기—



기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한다는 말은 이미 옛' 이야기로 되고 말았다. 나는 어려서 집이 구차하여 소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다.

해방후 나는 미래의 농산 기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게 되였다. 그때 일부 청년들은 이렇게 비웃었다.

— 뭐? 소학교나 나온 주제에 기사가 되려고…

그러나 나는 굳게 결심하고 우선 초, 고중 과목부터 전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물학과 로어 자습을 꾸준히 하였다. 당과 민청 단체가 언제나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었다. 정녕 모를 것이 있으면 나는 정주 농산 연구소에도 달려 가고 과학원에도 서신으로 물었다.

나는 자기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 하나 깨닫고 그것을 실제 농사에 적용하기에 애썼다. 한번은 우리 고향 농업 협동 조합에서 거름을 잘 못주어 되려 곡식에 해를 준 일이 있다. 나는 오래 동안 고심 연구한 끝에 그 원인을 정확히 구명하고 그로부터 청초 및 석회 질소 시비 방법을 새롭게 연구해 냈다.

이리하여 나는 자격 검정 시험을 치루고 농산 기사가 되였다.

언제던지 난관을 극복하고 배울 각오와 준비가 되여 있는 청년들의 앞에는 훌륭한 길이 열릴 것이며 영예도 쟁취될 것이다.

유화

잔 돈

공장 지구 "서점" 에서
친구 한 사람
책 한권 샀다네.
그는 백원짜리 한장을
출납원께 던졌다네.
출납원은 거스름 십원을
손님에게 공손히 드렸다네.
그러자, 이 친구 하는 말…
—필요 없소.
그러자 출납원이 하는 말.
—책 값은 구십원인데요?
그러나 친구는 어깨를 으쓱
책방을 그만 나가 버리네.
나는 이런 "멋"에 산다는 듯





기자가 개천 탄광 봉천갱을 찾아 갔을 때는 마침 작업 교대 종이 운 직후였다. 민청 돌격대원들은 갱안의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다.

—자, 그럼 오늘도 약속대로 한 시간 기술 전습을 하고 헤여집시다.

돌격 대장 김 영순 동무는 착암기를 강아지 머리 쓰다듬듯 만지면서 웃는 얼굴로 말하는 것이였다.

—옥녀 동무하고 최 동무 나오십시요.

그들은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 사람씩 번갈아 착암기를 어깨에 받치는데 그때마다 돌격 대장은 앉아 있는 동무들에게

—이 동무의 자세에 어떤 결함이 있소?

하고 묻는다. 그러느라면 여러 동무들이 각기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그들의 학습은 착암기를 메는 자세의 훈련에만 있지 않았다. 이는 새로 들어 온 굴진공들을 위한 초보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학습은 차츰 어려운데로 파고 들어 간다.

—좌우간 최 동무서껀 련습을 더 하는게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적용하고 있는 선진 채탄법인 평행식 채탄이나 다중단 동시 채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격 대장은 계속하여 선진 채탄법들의 우점과 기술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술을 빨리 숙달한 로력 혁신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해설하였다.

그들의 이 날의 기술 전습은 오늘의 채탄 실적 총화로써 끝났다. 그들은 이날 계획 100톤을 185톤으로 초과 채탄하였다.

돌격 대장 김 영순 동무는 민청 제 4차 대회의 대표였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지금 《보다 높은 기술을, 보다 빨리 가지자》 하는 것은 나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민청 제 4차 대회 이후 우리 민청 돌격대원들의 기술을 위한 의욕은 대단히 높아졌지요. 얼마 전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를 맞이했고 지금 1차 5개년 계획의 첫 발'자욱을 내딛고 있는 보람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술을 정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떳떳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겠습니까. 일하며 배우는 기쁨을 아는 로동자들은 피곤을 모른답니다.

본사 기자 리 정규

로력의 열매

젊은 선반공의 훌륭한 창의 고안

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청년 직장 선반공 김 동욱(브리가다장) 동무는 기대 앞에서 아주 능숙하게 부속품을 깎는다. 그때마다 항상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능률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본래 배운 것이 적은 그로서는 수학과 물리의 복잡한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기계를 깊이 리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꾸준한 학습으로 자기의 기술 수준을 높이여 왔다. 드디여 그의 진실한 노력은 열매를 맺고야 말았다.

그는 최근에 쏘련제 방직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노는 부속품 4,461호, 382호, 7,017호를 창의 고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1•8배내지 4배로 높이여 국가에 큰 리익을 주었다.



그는 새 해 1•4 분기에 또 하나 새로운 창의 고안을 할 것을 브리가다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생활은 가르친다



인민 배우

황 철

배우들은 인간의 생활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렇듯이 배우도 역시 인간의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한다.

내가 우리 나라의 위대한 애국자였던 리 순신 장군의 역을 표현할 때에는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행복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굳굳하게 싸우는 애국자로서, 인민의 장군으로서 가슴이 메여지는 듯한 감격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울분도 맛보게 된다. 나의 창조 사업에 대한 완강성과 정열은 나의 생활에 기쁨을 준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완성시켜 주고 있다.

용광로 앞에 선 로동청년이나, 조합 벌에 나선 민청원이나, 학원의 학도나 할 것 없이 오로지 자신의 생활 그 속에서 래일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완강하여야 한다.

미래의 커다란 행복을 위하여서는 오늘의 괴로움을 참고 억세게 정열적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서정시 청춘

김 순석

세월이 가면 모든 것 달라 지리라,
온 세상은 한 가정으로 친근하고, 화목하고,
시골에서 평양에 가고 오듯이
유성에도 가고 대양을 건너 극지에도 갈 수 있으리

세월이 가면 모든 것 달라 지리라,
땅 밑에서 파낸 포탄 쪼각을
희귀하게 박물관은 설명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전쟁의 유산이라고——

생각만 해도 가슴 달아 올라라,
불의를 불사르고 반목을 짓밟아 없애고…
아 모든 것 다 변하여도 변함이 없을
숭고한 추억 속에 우리는 남으리니

생각만 해도 가슴 달아 올라라,
우리의 하로하로의 예지와 노력이
먼 후' 날에 바쳐진다는 것은…
온 세상과 유성을 위해
우리의 청춘이 바쳐진다는 것은…

암흑의 새해

남조선에서





서정시 건설장에서

신 동철

새 해를 맞이한 건설장에서
길 잃고 울'상이 된 어린 처녀애,
벽돌공 청년은 상냥히 묻는다.
—어디서 왔느냐 귀여운 애야!

처녀애는 그만 울음'보 터치고
—대성리에서 삼촌 찾아 와시요.
벽돌공은 고개 갸웃
—처음 왔느냐?

—아니애요. 지난 가을에 왔을 땐
이런 골목이 없었때시요!
벽돌공 청년은 미소 짓는다—
(처녀애야! 어서 가자
울놈은 따로 있으니…)







얼마 전에 내가 평북 룡천군에 있는 북현 농업 협동 조합을 찾았을 때 이 조합에서는 《농산 크루쇼크의 밤》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밤 모임에서는!

이날 밤 모임에서 이들은《우리 조합 토질에는 어떤 벼 종자가 가장 적합한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새 해 농사를 앞둔 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작년에 이 조합에서는 벼 종자 《은구 12호》와 《평북 4호》를 각각 절반 가량씩 심었었다. 그런데 조합 총회에서 지난 해 농사를 총화해 본 결과 《은구 12호》가 《평북 4호》보다 훨씬 적게 수확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이곳 크루쇼크원들은 알곡 증산을 위하여 토지 리용률을 높이라는 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다수확 종자로서의 우점을 가진 이 종자가 왜 이 지대에서는 잘 되지 않는가를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였다.

바로 이 당면한 연구 제목을 걸고 여러날에 걸쳐 크루쇼크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해 온 그들은 이날밤 저마다 자기가 학습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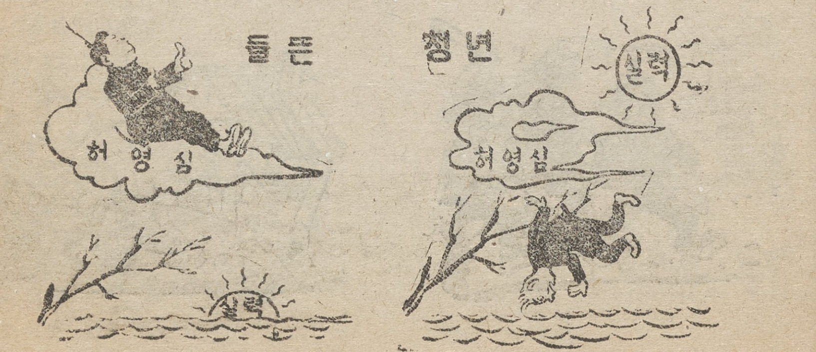
이 크루쇼크의 우 점은?

이 크루쇼크의 우점은 리론 학습과 농사를 실지 결부시키고 있는 그것이였다.

이들은 처음 크루쇼크에 참가했을 때 다만 책에서 본것들을 거저 통채로 외우기만 했으며 자기 조합의 농사와 결부시킬 줄 몰랐었다.

그들은 이러한 결함을 제때에 고치고 우선 자기들의 조합 농사에 필요한 문제들로부터 먼저 학습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해 이른 봄, 영농 크루쇼크원들 앞에는 다수확 작물인 옥수수에 대한 재배법을 연구하여야 할 일이 나섰다.



크루쇼크에서 《옥수수에는 어떤 비료가 제일 좋은가?》하는 제목을 분공받은 안 희찬 민청원은 책에서 동물질 비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을에서 동물질 비료를 장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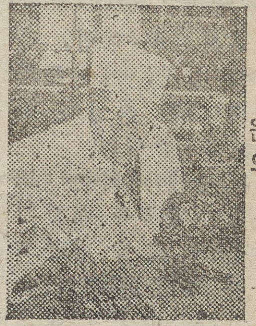
그는 꾸준히 연구한 결과 이삭이 나오기 전의 옥수수 한포기에 이미 비료로 된 갈거이와 개구리를 2―3개씩만 준다면 매 옥수수마다 2―3개의 커다란 이삭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크루쇼크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였다. 이 이야기는 인차 온 마을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백암 농업 협동 조합에서도 갈거이 2톤 800키로, 개구리 700키로를 잡아다 옥수수 밭에 주었다. 결과 평당 300그람, 정당 900키로의 옥수수를 더 거두었던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 할 일은?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성과는 크지만 그들이 앞으로 할 일에 비한다면 너무나 적은 것이였다. 그들의 할 일은 많고 많다. 선진 영농 기술과 경험을 보급하는 일! 어찌 이들의 할 일이 그것에만 그치랴! 그들은 2년 내로 모두 농산 기수의 자격을 가질 포부를 가지고 더욱 힘차게 더욱 꾸준히 자기들의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조합에서 3천 여평의 농산 크루쇼크 실습지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 실습지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 새롭고 선진적인 새 영농 기술을 발전해 낼 결심을 가지고 있다.





원사, 교수, 의학 박사

최 명학

내가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지는 한 30년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해방후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야 비로소 활기를 띠고 자유로이 과학 연구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동무들 청년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요. 그렇다고 해서 공학에 뜻을 두었는데 래일은 농학에 마음을 두고 모래는 의학에 희망을 거는, 그런 시계추와 같은 청년이 되지 마십시요.

한가지 부문에 특히 정통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력가들로 되십시요.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나 동무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영예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 축산, 잠업기사, 기수 자격 검정 시험에 대한 담화

조합원 금번 실시되는 농업, 축산, 잠업 기사, 기수들의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요.

편집원 민청 제 4차 대회는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결정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청년들의 기술 소유를 위한 대중적 행군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지금 기술 인재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오늘날 농촌 청년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합원 그래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2만명의 농업 및 축산 기수, 기사를 민청 단체들이 계획적으로 육성 배출할》 것을 결정한 민청 제 4차 대회 결정에 립각하여 우리들도 기술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 기수 자격 검정 시험이 언제 있게 됩니까?

편집원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은 금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조합원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중이나 고중을 나오지 않고서는 안만 잘 알고 있어도 기수나 기사가 되지 못한다는…

편집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꾸준히 학습을 하는가가 문제지요.

조합원 농업 분과에는 어떤 부문이 있으며 그 부문의 과목을 말씀해 주시요.

편집원 먼저 농업 분과부터 말하면 5개 부문이 있는데 일반 농산 부문에서는 식용 공예 사료 작물학, 육종학, 토양 비료학, 식물 보호학, 농기계학, 농업 경영학입니다.

과수, 채소 부문에서는 과수 소채 재배학, 과수 소채 육종학, 토양 비료학, 식물 보호학, 농업 경영학이고 토양 비료 부문에는 토양 및 비료학, 농업 미 생물학, 분석 화학 및 물리 교질 화학, 작물학 식물 및 식물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문에는 농기계 리론 및 재료 력학, 뜨락또르 및 뜨락또르 빠르크 운영, 뜨락또르 및 농기계 수리, 농업 경영학, 선택 과목은 뜨락또르, 자동차, 농업 기계 및 기구입니다.

조합원 다음 축산 수의 분과의 부문과 과목들을 말씀해 주시요.

편집원 축산 수의 부문은 축산 부문과 수의 부문인데 축산 부문의 과목들은 해부 및 생리학, 가축 사양 및 사료 작물학, 번식학, 수의 기본 및 산과학(여기에는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축산학 (여기에는 우학, 마학, 돈학, 양학, 가금 및 토학, 양봉학, 우유 가공학을 포함하며) 그 다음은 농업 경영학 등이 있습니다.

수의 부문은 미생물학, 병리 해부학, 전염병학, 약리학, 기생충학, (그런데 기수 또는 수의사 응시 과목은 축산학입니다) 가축 생리 해부학, 외'과학, 내'과학 등 8과목입니다.

조합원 잠업 분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요.

편집원 양잠 부문은 양잠학 (여기에 육종과 품종 개량 및 야잠학을 포함합니다), 재상학, 잠상 화학, 농업 경영학, 잠체 생리 해부 및 병리학, 제사학이고…

재상 부문의 과목은 재상학, 육잠학(야잠포함), 잠상 화학, 농업 경영학, 토양 비료학 그리고 야잠 사료학입니다.

조합원 공통 과목은 무엇들입니까?

편집원 공통 과목은 맑스—레닌주의 기본과 로어입니다. 어떤 과목에 종사하던지 간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나까요.

조합원 우리 조합에는 기사와 기수 자격 시험에 응시할 동무가 있는데 과목은 다르지 않는가요.

편집원 기사나 기수나 시험 과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조합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검정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편집원 무엇 보다도 당자들이 민청 단체의 방조밑에 계획적인 학습을 완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참된 생활의 길을 따라서

《지상 토론》

그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한낮은 꽤 무더웠다. 해'볕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베잠방이를 함빡 적셔 준다. 이윽고 기지개를 켜며 경훈은 자리에서 일어 났다. 아직 어제 마신 술 냄새가 그의 입'가에서 역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는 부시시한 머리를 내 저으며 한가한 오리 걸음으로 뒤'울안 밤나무 밑에 가 앉는다. 그리고는 파란 보에 싼 크림과 분이며 연지랑을 펼쳐 놓고 이것 저것 냄새도 맡아 보며 손에 묻혀도 본다. 그것은 약혼자인 순애에게 주려고 사온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四박 어제 하루 동안 조합 일에 나가지 않았었다. 그는 이것으로 족히 자기의 극진한 사랑이 그에게 표시되는 것으로 믿어 왔다.

너무도 순박하고 일에만 욕심을 부리는 순애가 제발 좀 도시 녀성 맛을 풍겨 주었으면 했다.

경훈네는 전쟁전에 합남도 어느 군에서 잡화상을 했다. 그 때는 집안에 들어 서면 제법 가장 집물이 즐비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쟁통에 몽땅 없어졌다. 밑천을 잃은 그의 아버지는 부득이 이 마을로 피난을 왔었다. 그의 부모가 농사 일을 붙잡은 것도 이때부터였다. 지금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협동 조합원이 되여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

경훈은 오늘도 그 때의 세간 그대로 순애와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랴 싶었다.

점심 시간이 되였다. 그를 찾아 순애가 왔다.

—어디 갔댔수?

이마와 코 잔등에 땀이 보송보송 내돋은 순애는 쌀쌀한 빛을 감추며 그의 곁에 조용히 와 앉는다.

경훈은 대답은 않고 앞에 내놓은 화장품에 눈웃음을 팔드니 슬그머니 그것들을 내 밀며…

—어디 좀 멋을 부려 보라구—했다.

—아이 이건 어데서 가져 왔어요?

순애는 열결에 좋아서 뚜껑을 열어 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 순간 정색하면서 따지는 것이였다.

—어데 갔댔어요?

—읍에!

—언제요?

—어제 아침에 갔다가 밤에 왔지.

—조합 일은 어쩌구? 그런데 오늘은 왜 안나왔어요?

순간 경훈은 불쾌하게 낯을 찡그리며

—안 나가문 큰일 나나? 힘들어서 좀 쉬여야겠어—한다.

—참 동무는 생각이 깊지 못해요. 조합에서 뭐라구 하는지 아세요? 난 속 상해 죽겠어요. 자랑으로 되지 못할망정 왜 남의 입에 오르겠어요?

순애는 울먹울먹 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경훈의 손을 잡아 끌며

—빨리 점심 잡수고 나가자요—했다.

그러나 경훈은 손을 채며

—안 나가! 내 언제 농사 해먹고 살았나? 수틀리면 직장에 나가고 말테야—하고는 어디론가 나가 버린다.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는 순애나 무슨 다름이 있느냐고 생각했다.

그들은 가끔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길을 거닐었다. 이러한 때마다 순애는 즐거웠다. 그러나 그의 즐거운 마음 한구석에는 서글픔이 잠겨 있었다.

순애는 생각했다.

(제발 좀 이 분두 남들처럼 조합 일에 성수를 내 주었으면…)

이 간절한 심정을 경훈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때로는 애원하듯 순애는 경훈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애원을 한갖 설교로만 듣고 되려 귀찮게 여겨 왔다.

× ×

이런 일이 있은지도 며칠이 지났다.

어느날 이곳 민청 초급 단체 총회가 있었다. 그날 회의에서 경훈은 많은 동무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경훈의 비위를 건드린 것은 뜻하지 않은 순애의 토론이였다.

순애는 눈물이 글썽하여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경훈 동무는 나의 약혼자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를 비판해야겠어요.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그를 비판 아니 한다면 나는 그의 좋은 안해로 될 수 없을꺼야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그의 두 눈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애는 말을 계속했다.

—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경훈 동무는 일을 싫어해요. 그리고

협동 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예요. 협동 조합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5개년 계획만 끝나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될꺼예요. 그런데 경훈 동무는 이런 앞날을 내다 보지 못하는것 같애요. 물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며 잘 살기까지에는 곤난이 있어요. 그런데 경훈 동무는 일은 하지 않고 잘 살 생각만 하며 곤난은 또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경훈 동무가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나종엔 구렁터에 빠지고 말꺼예요. 그러나… 그러나…나는 경훈 동무가 꼭 옳은 길로 나갈걸 믿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던 경훈은 순애의 얼굴을 민망스레 쳐다보았다.

그는 어쩐지 생당쑥을 씹는것 같이 역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회의가 있은 다음 날이였다. 경훈은 조합에서 말없이 어데론가 흔적을 감추고 말았다.

× ×

평북 어느 군 소재지에 온지 두달만에야 경훈은 집에다 편지를 썼다. 그는 삼촌의 소개로 생산 협동 조합 사무원으로 취직했다. 그는 그러나 이 몇달 동안 집 생각을 할 여가가 없으리 만큼 새로운 허망한 생활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여기 왔을 때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거리에서 좀 떨어진 마을, 어느 이동 판매점이 자리잡고 있는 집 어머니를 사귀게 되였다.

그는 이 집에 사흘이 멀다 하게 드나들었다. 그 어머니에게는 스물 두어살 나는 딸이 있었다. 경훈은 바로 이 처녀에게 눈을 부치고 다녔던 것이다.

그는 매양 과자며 사과를 사들고 다녔고 나종에는 화장품까지 선사하게 되였다.

이래서 그는 이집 어머니의 환심을 사고 인차 그의 딸 영옥이와 친하게 되였다.

—내 딸이 잘 나지는 못했지만 그애 마음 먹은 것도 그렇구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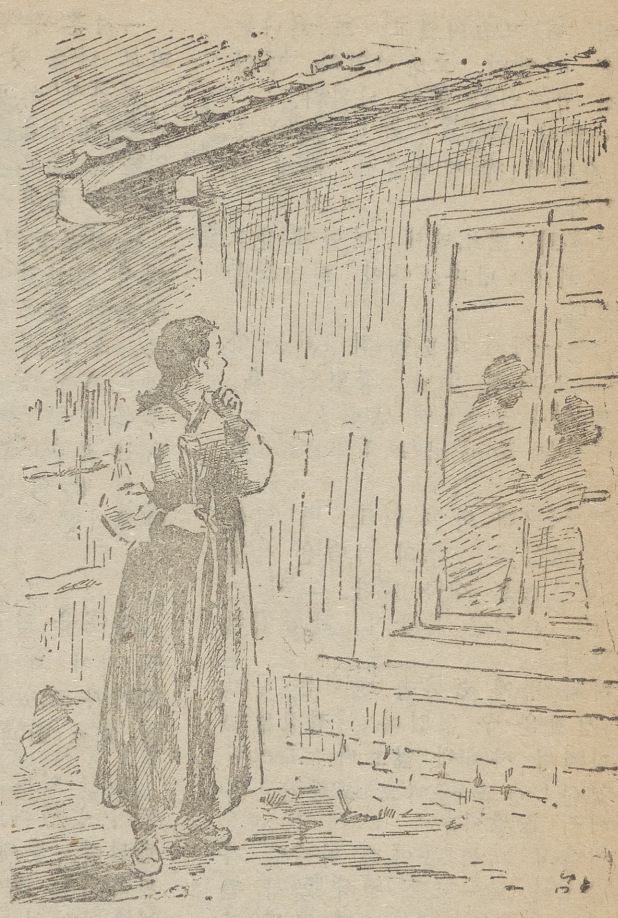
서 농사군에겐 시집을 보내지 않으려고 함메. 자네가 내 사위만 돼 준다믄야 우리네 모자 소원이 풀린 셈이지…호호호……

이런 일이 있은 다음날 부터는 오히려 그의 딸이 경훈의 방을 사흘이 멀다 하게 찾아 오는 것이였다.

경훈은 물론 먼 고향 땅 함남도에 이미 약혼한 사이인 순애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았다.

× ×

그러나 바야흐로 영옥이와의 약혼의 날이 가까워 오는 무렵에 천리로 먼 곳에서 순애가 찾아올 줄 그가 어찌 꿈엔들 생각했으랴!



그 어느날 밤의 일이였다…차에서 내린 순애는 지친 몸도 잊고 울렁이는 가슴을 누르면서 경훈의 집을 찾았다. 초행이긴 하나 경훈이가 자기 집에 보낸 편지 겉봉 그대로를 가져온 순애이니 그리 넓지 않는 이 거리에서 그가 방황까지 하지 않아도 능히 찾을 수가 있었다. 순애는 어느듯 경훈이의 방문 밖에 이르렀다. 그의 가슴은 섬찍했다. 그의 두 발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가 머물러 선 그 자리에서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순애의 가슴속에서 이처럼 뜨거운 불'길이 타보기는 처음이였다.

전등 불'빛을 안은 두 그림자가 창문에 비껴 있었다.
그림자 하나는 영락없는 경

훈의 뒤'모습이였고 또 하나는 젊은 녀인의 모습이였다. 방안에서 말소리가 흘러 나왔다.

—말이 나면 안돼! 소비조합 상점에 갈 궤짝에서 두개 꺼낸거야…

경훈의 말소리에 뒤이어 잘그닥 소리가 난다. 아마 화장품들 같았다.

—씨—가져 오라는 화장비눈 안 가져 오고 그 잘난 것만이야요. 이건 약혼식 할 때 쓸래!

녀자는 볼 부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순애는 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격분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려관 방에 돌아온 순애는 자기를 걷잡을 수 없었다. 정신없는 사람처럼 자리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울고 울어도 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흩어진 머리를 가다듬으며 노—트를 펼쳐 몇장 뜯었다. 그리고 그는 연필 끝에 침을 묻혔다.

—경훈 동무!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를 잊어 주세요…

예까지 쓰고난 순애는 다시 치미는 설음을 퍼뜨리며 종이 우에 얼굴을 묻고 만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닦고 또 써 나갔다.

—동무들의 이야기를 나는 밖에서 엿들었어요. 안심하세요. 동무들의 행복을 짓밟으려 아니해요. 오직 부탁은 동무의 그 허영심을 버려 줄것과 국가 물자를 탐오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 갑니다.

이 밤, 이 순간에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 쓸 수 없어요…

정 순애

경훈은 이튿날 밤에야 이 편지를 받아 보았다. 급히 려관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순애는 이미 아침 차로 떠났다 한다.

그는 이날 밤, 밤이 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순애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가?…그리고 영옥이와의 관계는?… 그리고 또 탐오한 나의 죄행은?…

편집부는 이 글의 주인공들인—순애, 경훈이 그리고 영옥이들을 도와 주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들을 동지적 립장에 서서 도와 주십시오.

《청년생활》 지상을 통한 훌륭한 당신들의 의견을 듣고서 편집부는 이 글을 맺을려고 합니다.

약혼하는 날 밤

박 응 호

장 문철 로인은 화가 날대로 났다. 벽 시계가 아홉시를 알린지도 이슥한데 상렬이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워낙 성깔이 까다롭고 무뚝뚝한 그는 연성 혀를 차며 담배만 련거퍼 빨고 있었다.

초저녁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던 문칠 로인과 같이 20년을 이곳 제철소 평로 용해공으로 일해 오는 채 성규 로인이며, 그리고 상렬이와 같은 장입기 운전공인 정식이도 오도 가도 못한 체 민망스러히 앉아 있었다.

사실 문칠 로인이 화를 내게 된데는 까닭이 있었다. 오늘 저녁이 바로 그의 맏딸 순실이와 리 상렬이와 약혼을 하는 날인 데도 상렬이가 오지 않는 것이다.

순실은 제강 직장에서 축강을 계산하는 검사원이였다. 그가 상렬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일년전 여름부터였다. 상렬이 제대되여 문칠 로인이 일하는 평로 장입기 보조공으로 배치되였을 때 문칠 로인은 첫 눈에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었다. 그것은 다만 그의 외모가 사내답고 믿음직한 것보다는 그의 곧고 성실한 성품과 더우기 그의 일을 배우려는 불타는 노력이 바로 이 로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상렬은 반년 가까이 정식의 보조공으로 일하면서 하루 속히 기술을 배우려는 의욕에 불탔다. 그는 합숙 자기 침대 웃천정에 장입기의 구조와 그의 운전 방법 등을 도해로 만들어 부쳐 놓고는 잠자기 전이나 잠이 깨여서도 늘 그를 올려다 보며 기계 구조를 익히고 운전 방법을 련습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짬만 있으면 도서실에 박혀 기술 학습에 열중하였다. 이 소문은 곧 합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강 직장 내에서도 자자해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에 직장 신문 《용광로》에는 상렬의 이와 같은 사실이 대대적으로 소개되였었다.

워낙 자기 기술에 자만하고 거만스러운 정식은 차츰 상렬을 아니꼬운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신입 보조공을 주위에서 이렁궁 저렁궁 칭찬하는 이것도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것 보다는 딴 리유가 더 컸었다.

상렬에 대한 기사가 《용광로》에 게재되였던 그날은 마츰 문칠 로인의 생일날이였다. 그는 이날 평로의 몇몇 용해공들과 상렬, 정식들도 자기 집에 초대하였다. 이날 저녁 술'기에 홍건해진 문칠 로인은 순실이가 음식을 드리고 내가고 할 때마다 유별나게 즐거운 얼굴로 상렬과 순실을 서로 저울질 해보며 뜻있는 웃음을 입'가에 띠우군 하는 것이였다. 순간 이를 보는 정식은

무엇으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감이였다. 사실 정식은 오래 전부터 순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러니 문칠 로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정식의 마음을 몹시 자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부터는 더욱 상렬을 눈 안의 티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공연히 까다롭게 시비를 걸군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문칠 로인은 상렬이가 전쟁으로 고아가 된 것을 구실로 삼으면서 항상 그를 자기 집에 데려 가군 하였으며, 이제는 그의 옷 시중까지 순실에게 맡기는 판이였다. 어느듯 일년이 지나는 동안 순실은 싫다마다 말 없이 상렬의 신변을 돌보아 주었으며 그러는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상렬은 일년만에 장입기 운전공이 되였다. 그때로부터 다시 반년이 지난 이날 그들은 약혼을 하게 되였던 것이다. 상렬의 행방을 알아 보려 나갔던 상렬의 보조공인 덜레바리 영모가 맥없이 들어 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생겼시다.

영모는 움켜 쥔 모자를 휙 온돌 바닥에 던지며 풀석 주저 앉으며 말하였다.

—글쎄 합숙에선 분명히 여섯시에 차려 입고 나갔다는데 어딜 갔는지 영 종잡을 수가 없시다. 청년 구락부, 로동회관, 식당 이렇게 발칵 뒤집었는데두 나타나질 않아요! 분초 위원장두 모르겠대 젠장!

영모는 어깨를 떨구며 한숨까지 푸하니 내 쉬였다.

—직장엔 가 봤냐?

성규 로인이 멋없이 타 들어가는 담배'재를 털 생각도 잊고 이렇게 물었다.

—직장엔 뭘 땜에 갔겠나요? 우린 2교대 성찬 동무한테 정각 다섯시에 인계하고 같이 직장을 나왔시다. 정말 정신이 쑥 빠졌지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영모는 정말 모를 일이라는 듯 이번엔 쩝쩝 입을 다시며 두덜거렸다.





이 때에 정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지나는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벽 시계는 다시 열시를 알렸다. 주인과 손님들의 얼굴에는 더욱 불길한 예감과 심한 초조감이 떠돌고 있었다. 이윽고 성규 로인이 기다리기에 지쳤던지 돌아 가려는 차비로 일어 서려는 때였다.

평로 민청 분초 위원장인 명일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 들어 왔다.

—미안 합니다. 아까 영모 동무의 말을 듣구서 이제야 상렬 동무를 만나려 왔습니다. 이제 곧 들어 올겝니다. 젠장 이 사람이 왜 이리 굼뜬가!

그는 단숨에 이야기를 다 해 버리고는 연성 밖을 내다 보며 혀를 차는 것이였다. 이윽고 작업복 차림을 한 키가 탐탐하고 어깨가 쩍 버그러진 젊은이가 들어 왔다. 상렬이였다. 그런데 웬 일인지 그의 얼굴과 손은 왼통 기름 투성이였다.

—아니 상렬 동무! 이게 도대체 무슨 몰골이람!

영모가 얼굴을 찡그리며 빈정댔다.

상렬은 얼룩진 얼굴에 조용히 미소를 띠우며—미안 합니다—외마디 말로 문칠 로인께 송구스러운듯 말하였다.

상렬의 아래 우를 훑어 보던 문칠 로인은 다른 말은 않고

—세수나 어서 하게…얘 순실아! 상렬이 세수'물 떠 놔라!

하며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상렬이 세수를 하고 났을 때 순실이가 얼굴을 붉히며 새'하얀 수건을 내다 주었다.

성규 로인이 참다 못해 상렬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 그래 작업을 하댔나?

—네! 2교대 성찬 동무가 갑자기 복통을 만나 장입기가 멎었다고 하기에 제가 대신 갔더랬지요.

상렬은 더운 물에 붉으스레 해진 얼굴에 계속 미소를 띠우며 말하였다. 이때 그의 두 볼에는 우물'보가 또렷이 들여다 보였다.

—정말 부득이 한 사정이 였습니다.

하며 명일이가 덧부처 말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렸다.

상렬이 합숙을 나서자 급히 달려 오는 제 2교대 보조공 태호를 만났다. 그는 운전공의 사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장입기가 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운전공을 대신할 3교대 운전공을 찾았으나 외출하고 없다는 것과 할 수 없이 2호 평로 장입기 운전공인 정식에게 부탁하니 그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거절하더라는 것과 이렇게 되면 출강 시간이 형편 없이 늦어진다고 안타까이 말하였다. 상렬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직장으로 달려 갔던 것이다.

그 후에 명일이가 이 사실을 알고 3교대 운전공을 찾아 교대케 한후 상렬을 데리고 온 것이다.

명일의 말을 듣고 있던 정식은 얼굴을 붉힌 체 덤덤히 앉아 있었다.

이 때에 성규 로인이 참다 못해

—이 사람 정식이! 남은 약혼까지 잊고 동무를 도우려는데 자네는 그게 뭔가?…그래선 못쓰네—

하며 한마디 하는 것이였다.

—이젠 그만 함세! 더 말 않더래두 알만 한 일이 아닌가? 자 상렬인 어서 옷이나 갈아 입게!

하며 문칠 로인은 우정 서둘어 대는 것이였다.

정식은 더욱 낯을 들 수가 없었다. 한 동안 생각에 잠겼던 정식은 무슨 생각에선지 슬며시 고개를 들며—상렬이!—하고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끝을 맺지 못했다. 상렬은 이 때의 정식의 심정을 리해한다는 듯

—정식 동무! 고맙네!

이런 뜻 있는 말을 다정히 정식에게 건니고는 웃방으로 살아졌다.

이 때에 웃방에서는 행복의 웃음을 머금은 순실이가 새로 장만한 상렬의 새 옷을 조심히 의롱에서 꺼내고 있었다. (1956, 12)

생활은 가르친다



공화국 영웅

장 제근

우리 군부대가 적 수백명을 살상한 565고지 전투 때였다. 불과 23시간 동안에 원쑤들은 아홉 차례나 공격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겼다. 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로 그 힘이 우리의 긴장된 태세에 있었다고 본다. 한 차례의 전투가 끝나면 다음 전투를 위하여 총을 닦고 총알을 재우며 원쑤를 대기하는 바로 그런 긴장성 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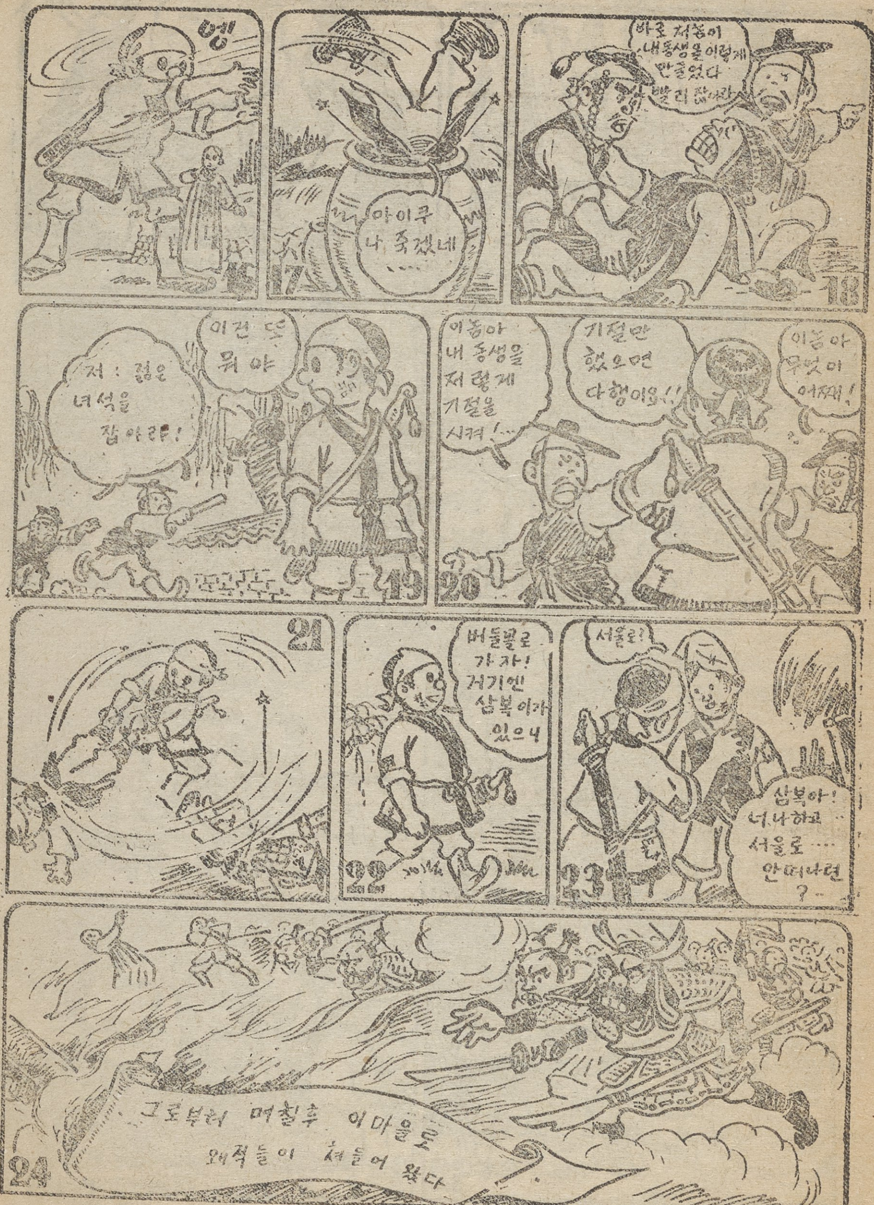
우리 강토에서 포성은 멎었으나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원쑤들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초병들이나, 로동 청년들이나, 농민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민들과 함께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경각성 있게 원쑤들의 준동을 살피는 일, 이것이 나는 우리들의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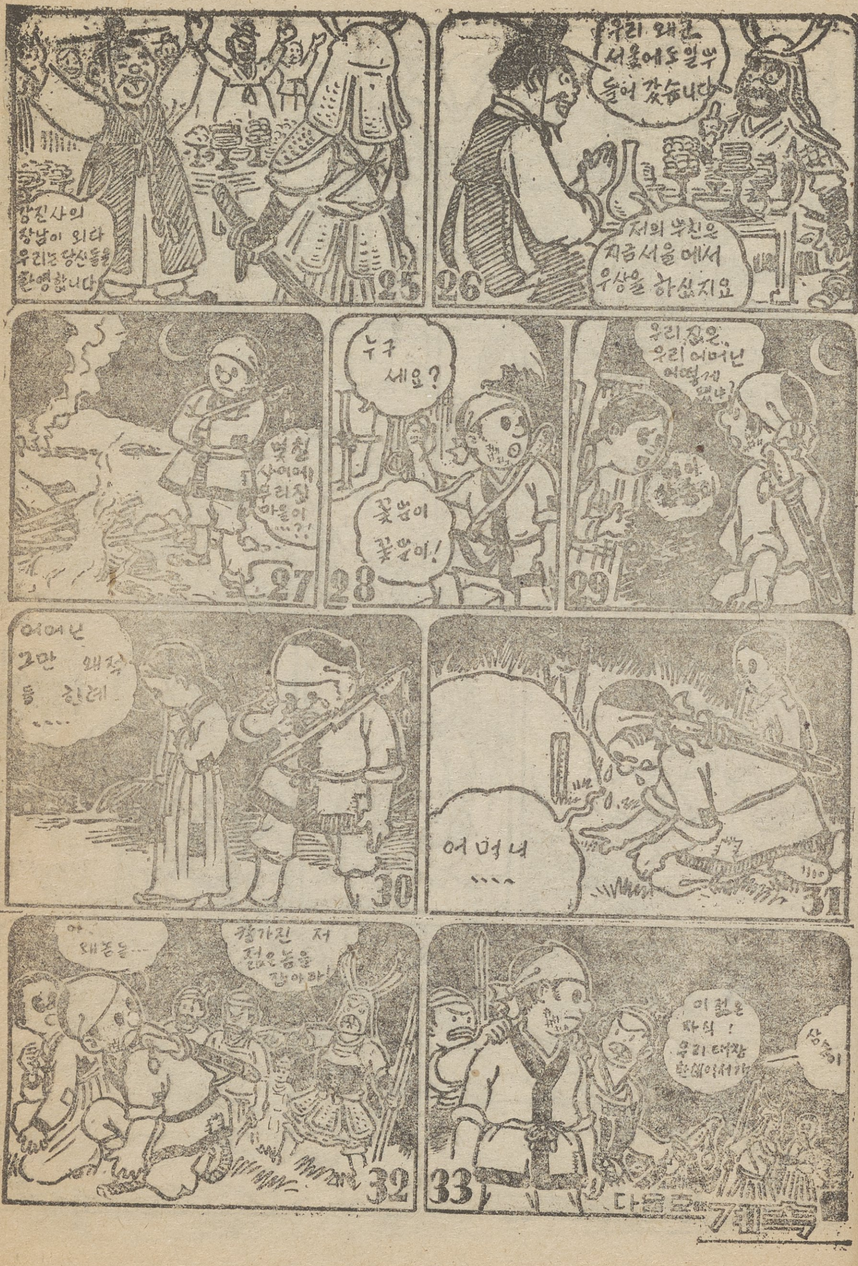




당장 불기를 처라!
어머니 알겠서요
그만 억울하게두 .... 돌아 가셨다. 그러나 삼손아! 이건 할아버지의 것이다 이걸 가지구 ....
이칼과 활로 무술을 배워 꼭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지
무술을 배우기 시작한지도 벌써 이년이 지났군 ....
.... 아이 사람살려 주세요
아니 꽃분이 굴!
..... 꽃분아! 꽃분아!!
이게 무슨 짓이요?
상놈의 자식 애비없는 놈 비껴 봐저



벵
아이구 나 죽겠네 ....
바로 저놈이 내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빨리 잡어라
저 : 젊은 녀석을 잡아라!
이건 또 뭐야
이놈아 내 동생을 저렇게 기절을 시켜! ...
기절만 했으면 다행이요!!
이놈아 무엇이 어째!
버들벌로 가자! 거기엔 삼복이가 있으니
서울로?
삼복아! 너나하고 서울로 .... 안떠나련? ..
그로부터 며칠후 이마을로 왜적들이 처들어 왔다





첫걸음

박 덕 수

호남 땅의 벼들은 누렇게 말라 들어 갔다. 초복이 지났건만 비는 오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온 종일 모래 바닥을 파고 있던 젊은 농부 한 사람이 서슬이 퍼래서 지주 김 선달네 집으로 총총히 발'길을 옮기였다. 그 뒤로 몇 사람의 농부들이 따라 섰다. 그들은 우물'가에서 김 선달네 패들이 물을 퍼내는 것을 한참 동안 노려 보고 있었다.

—오사는 이십에, 오륙은 삼십이라.

—이러면 벌써 반백이지, 히히…

그것은 분명히 김 선달의 목소리였다. 달'빛을 입어 금'빛으로 넘실거리는 우물 속을 들여다 보며 김 선달은 게운한 제맛에 흡족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동네에서는 큰 우물이 매우 귀하였으니까 과연 그것은 그의 말과 같이 꿀물이나 다름이 없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동시에 원한의 물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김 선달이가 짰'군을 동원하여 진 종일 물을 퍼내며 독차지한 때문이였다. 그 뿐인가?! 물이 고이는 밤이면 그는 거기에 엄중히 파수를 세웠다.

동네사람들은 분을 풀어 버리고 싶었으나 지주와 한짝인 지서와 면소의 후탈이 무서워서 서뿔리 선달이를 건드리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선달의 배'심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물로써 품값을 제하여 농민들을 몇 곱절이나 더 착취해 먹자는것이였다.

—오팔은 사십에, 오구는 사십오라…

선달이는 암산을 하노라고 더펄 머리를 끈덕거리며 제법 신바람이 나서 팔

자 수염을 쓱쓱 만지였다.

—저걸 어쩔그라우…

젊은 농부의 말이다.

—을만이! 진중하게. 혼자선 못 당하네. 모두 힘을 합해야지.

광주'집 어른이 만류하는 것을 을만이는 끝내 뿌리치고 선달이 앞에 다가 섰다.

—우물은 동네 것입니까? 이 댁의 것입네까?

그러자 선달이는 급기야 낯색이 달라졌다.

— 그래 동네꺼면 어쩌고 우리꺼면 어쩔틴고?

—너무도 무서운 물 고생을 당하니까 하는 말이지요.

—물 고생을 당하구 아니 당하구는 하늘이 하는 일이지 어데 내가 알 일인가?

—그렇지만 이 댁에선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늘이 귀하고 산천이 귀하다면 그 하늘이 보고 산천이 보는 앞에서 감히 어떻게 선량한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참지 못할 생지옥이지요.

생지옥!

—머 생지옥?! 옳소. 과연 생지옥이오. —하고 선달이는 파란 눈을 굴리며 뇌까렸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이걸 천벌인줄 알아야 하오. 죄 많은 말세에 내리는 하느님의 벌이오. 회개해 보지, 토수세를 내는가, 기부금을 내는가, 징병에 응하는가? 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번번히 훈계를 하시는 것도 몰라 보구 그러니깨 이런 죄 많은 천민에게 어째 천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오? 그건 백번 감수할 일이오, 차라리 죽을 놈은 빨리 죽어야지. 이러구야 어데 착한 사람이 살아 내겠나 말이요.

(머 우리 보고 죽으라꼬?)



을만의 눈에는 무서운 독이 올랐다. 광주'집도 미처 그를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

—옌병할 놈의…너나 죽어 봐라—을만이가 소리를 지르며 먼저 달려 들자

—이 놈아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다른 농군들도 우루루 덤벼 들었다.

광주' 집 어른과 물을 푸던 쌨'군들이 중간에 뛰여 들어서야 선달이는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다.

—어데 보자!

선달이는 을만이를 뚫어지게 노려 보았으나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상아'대질을 하며 뭐이라고 두덜거리다가 이 편의 기세에 눌리워서 그만 집안으로 황급히 뛰여 들어 갔다.

—어쩔라고 아저씬 중간에 뛰여 들었소? 저 놈을 살려 두면 큰 일이 날 것인디.

을만이는 푸—한숨을 쉬고 아니꼬운 입맛을 쩍쩍 다시였다.

—이 사람아! 자넨 내가 저 놈의 양돼지께서 돈푼이나 받아 먹는 줄 아나? 너무 경솔하게 굴지 말게. 자네 혼자서 저 놈을 때려 눕혀도 소용 없는 짓이네. 저 놈이 그래 자네 혼자만의 원쑤가? 공동의 원쑤 공동으로 쳐 부시는 법을 배워야겠네. 함부로 아까운 주먹을 들지 말게. 자네처럼 성급히 굴다가 헛때리면 어짜게. 그러나 칠 때가 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아주 골통이 부서지게 면바루 치도록 나처럼 힘을 랑비하지 말란 말이여.

광주'집의 넓은 얼굴에 씨원스런 웃음이 흘러 갔다.

—좌우간 좋네. 이젠 금성산에 봉화가 오른 셈이 되였으니께. 별 수 없이 행동으로 넘어 가야겠께.

그는 한패를 선달의 감시에 부치고 다른 한패를 동구 앞에서 파수를 보게 한 다음 을만이를 파발'군으로 보냈다.

—우선 물을 퍼야겠네. 당장에 동네 사람들을 부르게. 어서…

—네…

을만이는 불이낳게 달려 가며 목청껏 부르짖었다.

—물이여, 물! 꿀물이여!

× ×

휘영청 맑은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였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밤이 점점 이슥하게 짚어 갔다.

—하나, 둘…

—어 허…

두레와 물통을 들고 나온 동네' 사람들이 작업에 달라 붙었다. 아낙네들 패에는 반가운양 을만의 안해도 끼웠다.

—셋, 넷…

—어 허…

사람들의 합성이 넓은 벌판을 힘차게 헤엽쳐 나갔다.

—자 여러분! 이 기세로 푸면 밤'중으로 삼천 두레는 문제 없겠습니다. 제일 가물이 심한 을만이네 논부터 숨을 돌궈 줍시다.

작업을 지휘하는 광주'집 어른의 목청은 억눌리고 살아 왔던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며 생명수를 부어 넣듯이 기운을 돋구어 주었다.

—우리 농군들이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습네다. 혹시 경찰이나 면소에서 쓸어 와도 무서워 마시오. 끝끝내 버티고 있어야 합네다. 이기고 지고는 오로지 우리 농군들의 손아귀에 달렸으니까요.

광주'집 어른이 머리'수건을 풀어 흔들자 또다시 함성이 일어났다.

물은 을만이의 논부터 적시기 시작하였다. 을만이는 이 광경을 바라 보자 가슴이 벅차 올라 왔다.

(그렇다! 홀 힘은 너무도 약하다. 단결된 힘 앞엔 지주도 경찰도 두려울 것이 없다.)

어느듯 날이 어슬어슬 밝아 왔다.

—꼬끼요…

첫 닭이 울었다.

그것은 첫 승리를 맛본 젊은 투사를 새로운 투쟁에로 부르는 새벽의 진군 라팔 소리와도 같이 들려 왔다.

—1956. 12. 25—



아프아프섬의 금라팔

이름 높은 탐험가 애매리•훰스내겔 박사는 최근 《아프아프 섬의 이상한 풍속》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는 언론자유에 대한 자미있는 이야기가 씌여 있는데 그가 이 섬에 사는 토착민들 속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 섬의 스로보브(부락의 추장, 원작자주) 이지•브므브므는 어떤 날 궁전 안에 연회를 베풀고 훰스내겔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탐험가 훰스내겔 박사는 담화 중에—이 섬에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또한 내놓고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있습지요.

—그것을 실지 어떻게 실행하십니까?—하고 훰스내겔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하고 스로보브가 설명했습니다.—어떤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우리는 이 섬의 전체 주민을 우리의 궁전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때 대승정이 문제를 선포하는 데 뒤이어 금라팔을 불게 합니다.

—금라팔이란 어떤 것입니까?

—금라팔은 대중의 의견을 말해 주는 둘도 없는 도구입니다. <모든 찬성하는 분은 금라팔을 불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 제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모두 금라팔을 붑니다. 다시 내가 왼 손을 머리 우에 올리면서 <모든 반대하는 분은 금라팔을 불어 주십시요!> 하고 말하면 이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금라팔을 붑니다. 이리하여 라팔 소리가 더 많이 울린 편이 다수일 것이니만큼 문제는 곧 그들의 다수 의견대로 결정됩니다.

—그것 참 내 보기에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방식 같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가해 보고 싶고, 또 사진을 몇장 찍었으면 합니다.

이튿날 점심 때 훰스내겔 박사는 이 모든 것을 몸소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섬의 주민이 스로보브 궁전 앞에 소집되여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모여 든 군중은 한 3천명에 가까웠는데 그의 팔뚝을 가리운 헌겊만 떼여 버린다면 모두가 벌거숭이로 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중한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화려한 옷을 떨쳐 입은 네 사람이 보석에 눈부신 가마를 타고 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네 사람의 온 몸에서는 보석이 번쩍거렸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는데 회장에 모인 사람들 옆에 꽃방석을 깔고 앉자 그들의 몸종들이 공작새 털로 만든 커다란 부채로 그들을 부쳐 주고 있었습니다.

—저 분들은 누구입니까?

하고 훰스내겔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 분들은 우리 섬에서 제일 돈 많은 분입니다.

하고 스로보브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회장에 나타나자 대승정은 곧 양가죽 종이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뒤이어 스로보브가 앞에 나아가 오른 손을 머리 우에 쳐 들었습니다.

—모든 찬성하는 분들은 금라팔을 불어 주십시요!

그러자 부자 네 사람이 금라팔을 높이 쳐 들고 힘껏 불었습니다.

스로보브는 다시 왼 손을 머리 우에 쳐 들었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분들은 금라팔을 불어 주십시요!

그러나 장내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면 결정 통과합니다!

하고 스로보브가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 네 사람만 금라팔을 붑니까?

하고 훰스내겔 박사가 스로보브에게 물었습니다.

—그야 그들만이 금라팔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하고 스로보브가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나 하는 머슴'군들 뿐이니까요!

—내 보기엔 근본적으로 이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하고 훰스내겔 박사가 말했습니다.

—결국은 몇몇 부자들만 자기의 라팔을 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인민들이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마련되여 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스로보브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휜스내겔 박사가 뽐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따위 금라팔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문, 잡지와 방송국을 리용합니다.

—허 그거 참 재미있군요! —하고 스로보브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잡지와 방송국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야 부자들이지요!

하고 휜스내겔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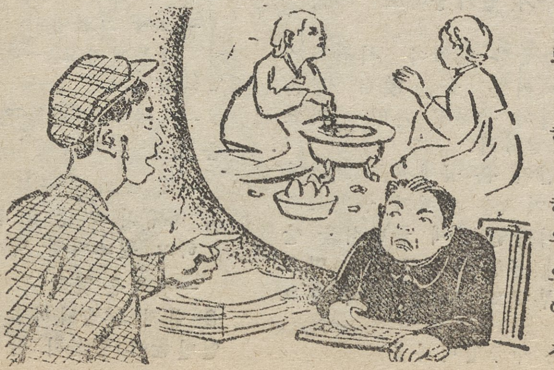
—그러구 보면 우리 섬의 제도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하고 스로보브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미국에서도 부자들만이 제 라팔을 부는게 아닙니까? 모든 소리는 그들께서 울려 나온 것입니다.



《현명》한 대답

조합 분 초급 단체 위원장

—부기원 동무! 어째서 동무의 부인은 가마니 짜기에 안나오?



부기원

—아 저의 안해말입니까? 만약 저의 안해가 나오면 위원장 동무의 부인이 집에서 홀로 갑갑해 할까봐…



(1)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류의 조상은 무엇인가?

약 백만년 전 아득한 옛적… 기후가 매우 더운 지방에는 가장 발전된 류인원들이 나무 우에서 떼를 지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네발로 걸으면서 나무 우에서 열매와 풀'잎들을 따 먹었다. 그들은 앞발을 나무 가지를 휘여 잡거나 열매를 따거나 새끼를 안는데 쓰고, 뒤'발은 몸을 받치는데 썼다.

(2)그후 그들은 춥기 때문에 부득이 땅우에 내려와 살았다.

이때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앞발을 전보다 더 음식물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앞발은 차츰 걷는 데는 사용되지 않게 되였다.



(3)류인원들은 처음에는 돌과 몽둥이로써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기도 하고 작은 짐승을 잡기도 하였다. 높은 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도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쳐서 따먹었으며 나무 뿌리, 풀 뿌리는 뾰족한 돌맹이나 나무 끄챙이로 캐 먹었다. 이러는 동안에 류인원들은 드디여 돌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게 되였다. 이것이 이른바 가장 처음의 로동 도구였다.

(4) 로동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인간의 로동은 시작되였으며 류인원은 인류로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만 나무 열매와 풀 뿌리를 먹지 않고 로동 도구를 써서 필요한 물건들을 얻어 내는 생산을 하게 되였다.



이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완전히 곧게 서서 뒤'발로만 걷게 되였다.

곧게 서서 걸어 다니게 된 것은 사람들의 등뼈를 곧게 만들였으며 뇌각도 커지게 하였다. 그리고 목과 입안의 생김도 달라지게 하였다.

(5) 인류가 처음에 쓴 아주 유치한 로동 도구로써는 혼자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냥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은 짐승을 모는 일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돌이나 몽둥이로써 짐승을 까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힘을 합해 일하는 동안에 또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를 느끼였다.



(6) 원래 원시인들은 산'불이나 번개'불을 아주 무서워 하였다. 그러나 점점 불을 리용함으로써 추위와 사나운 짐승들의 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과 또 불에 태운 음식이 생 음식보다 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 힘으로 불을 일으키였다.

이때로 부터 원시인들은 완전히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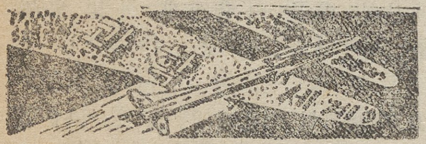




(7) 불의 발견은 인류를 더운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추운 지방에서도 살수 있게 만들었다.

음식물의 종류도 더욱 많아졌으며 고기를 구어 먹게 됨으로써 영양분을 많이 취하여 몸도 튼튼해졌고 두뇌가 발달하였으며 만만한 음식을 씹게 된 탓으로 이'발도 작아져 말도 더 잘 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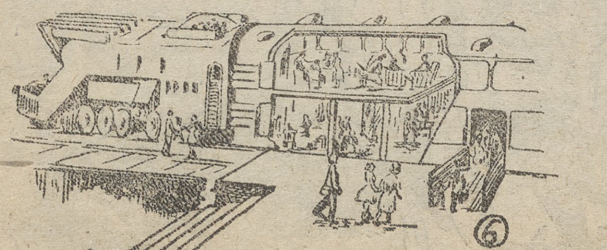
원자 기관차

쏘련 기술자들은 8천 마력의 힘을 가진 원자 기관차를 설계하였다.

이 기관차는 두 개의 부문으로 되여 있다. 첫 부문에는 원자 반응기와 보일라가 있고 둘째 부문에는 증기 타빈과 그외 설비들이 장치된다. 반응기에는 원자의 해로운 광선이 사람의 몸에 주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하여 훌륭한 막이 세워져 있다.

원자 기관차는 1천키로메터를 달리는데 다만 15그람의 핵 연료만 있으면 원자 기관차는 넓이 3메터를 가진 넓은 철'길에서 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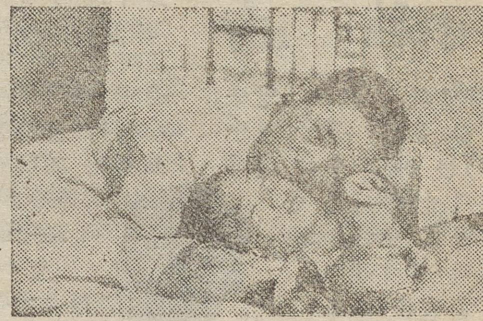
쏘련 기술자들은 지금 보통 철도에서도 달릴 수 있는 원자 기관차를 설계하고 있다.



⑥

조선예술영화

승냥이



미국 선교사 스티븐슨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칭하고 조선 사람을 종교라는 아편으로 중독시키며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 흉계를 꾸민다.

어느날 수길이는 공 하나를 줏는다. 그 공을 어머니(스티븐슨네 식모)께 말하고 메리에게 바치였으나 메리는 선심 쓰는 듯이 수길에게 준다.

그런데 바로 수길이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씨몬은 수길이를 도적놈이라고 하면서 야구 방망이로 수길이를 내려치고 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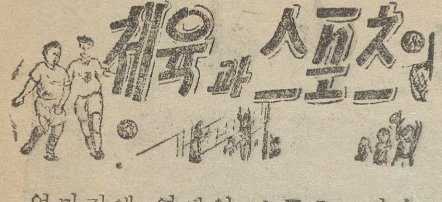
수길이는 정신을 잃는다.

스티븐슨네 집에서도 소동이 일어난다. 스티븐슨은 마치 선교사의 《자선심》을 표시하는 듯이 수길을 기독 병원에 입원 시킨다.

수길 아버지의 동지이며 어부 출신 청년 투사 동건이는 이런 사건이 있던 당시 바다에 나갔다 늦게야 돌아 온다. 그는 기독 병원 간호원인 자기의 애인 문 경순에게 수길이를 미국놈들의 병원에 맡겨두는 무경각성에 대하여 꾸지람하며 수길이를 자기의 동지인 민생 병원 의사에게 맡기자고 한다.

그러나 스티븐슨은 맥부인을 시켜 수길이에게 극약 주사를 놓아 독살시킨 다음 전염병으로 몰아 화장해 버린다.

이렇듯 조선 예술 영화 《승냥이》는 미제의 야수성을 폭로하고 있으며 조선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미제를 반대하여 일어서는 불굴의 애국주의 정신을 보여 준다.



얼마전에 영예의 스포츠 명수 칭호를 받은 강 봉현 롱구 선수(민족 보위성)는 지금 우리 나라의 청년들 한테서 두터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오늘의 그런 영예를 얻기까지에는 굴할줄 모르는 투쟁과 노력이 깃들었다.



어려서부터 롱구에 재간이 있었던 강 봉현 동무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롱구 발전에 기여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그가 있는 남조선에서는 그럴수 없었다. 체육장들을 미군의 군사 련병장으로 빼앗기였고 선수들 끼리 모여서 련습을 하면 그날은 꼭 경찰서에 불리여 가서 —련습 외에 무슨 정치를 론의하지 않았는가?—하는 심문을 받는게 상례였다.

강 봉현 동무는 오직 38선이 터져 남북이 통일되는 때라야만 자기들의 자유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 봉현 동무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을 때 정말 하늘에라도 날고 싶은 기쁨이였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한 가운데 자기의 왼손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중앙 공격수로서의 보다 높은 역할 등 문제를 극복하게 되였다. 그리고 그는 선진 쏘련 롱구 선수들의 경험을 체득하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개인의 기술을 제고하기에만 힘을 다한 것은 아니다.

강 봉현 동무는 신진 선수들을 길러 내며 우리 나라의 체육 성과를 세계에 시위하는 일에서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가 그처럼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정력을 가지고 교육한 녀자 롱구 선수들은 지난번 제 5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서 《베그루빠》에 참가하여 제 1위의 영예를 얻었던 것이다. 강봉현 동무는 지금 우리 나라 청년들의 체육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 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편집 위원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연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1.호 1957년 1월 25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1월 30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0원) ㄱ—40349 50,0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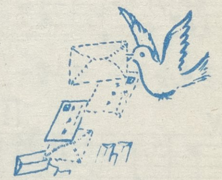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에게

당신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져

독자 여러분! 새 해의 축하를 드립니다. 잡지 《청년 생활》은 새 해부터 당신들의 보다 친근한 벗이 되고져 합니다. 우선 내용을 아주 쉽게 그리고 자미 있게 하렵니다. 형식도 아주 다양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동무들!

우리의 이 희망은 결코 우리 편집부 성원들의 머리와 손만으로는 아니됩니다. 독자 동무들의 협력과 꾸중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 해엔 보다 더 깊은 련계를 가집시다.



당신들 가운데서 통신원이 될 분

잡지를 위하여 항상 투고하며 자기가 맡은바 일에서 충실한 청년들은 그 누구나 다 《청년 생활》의 통신원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부는 통신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하여 힘 쓸 것입니다. 통신원들의 글이 발표되였을 때에는 일정한 보수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투고를 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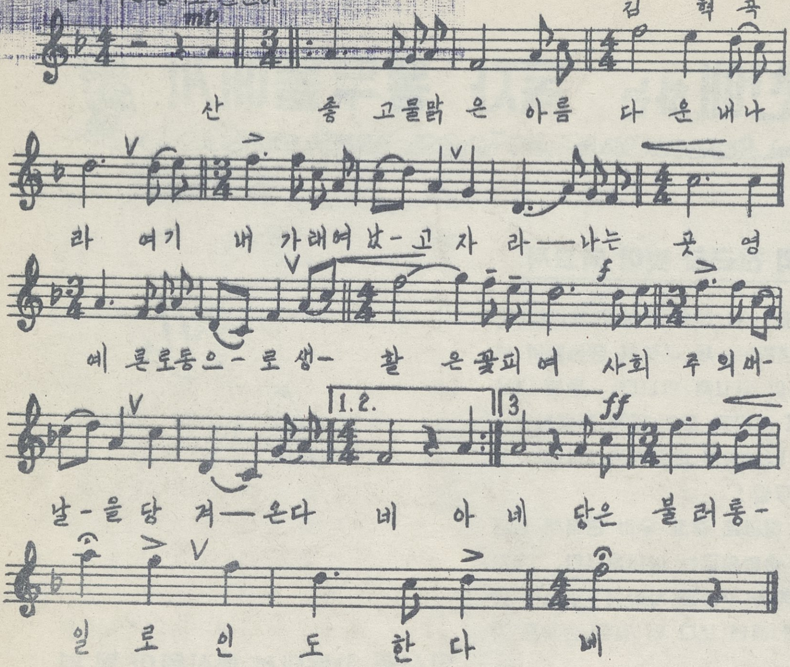
편집부는 당신들의 투고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민청 생활, 당신들의 보람찬 로력 투쟁 모습, 그리고 당신들의 생활에서 의[illegible]되는 점들, 모를 점들, 꼭 세상에 말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점들 등등을 써 보내 주시요.



내나라

유종원 시
김혁 곡

갑격적인 정서로 천천히



2. 아름찬 오곡이 물결치는 내나라
여기 내가 일하며 배워 가는 곳
기름진 옥토에는 복물이 넘치고
사람마다 자랑하는 노래가 있네

3. 아침해 눈부신 사랑하는 내나라
우리 함께 받들어 빛내이는 땅
삼천만 예로부터 하나인 가슴에
당은 불러 통일로 인도한다네

